

전북대 이병규 동문, 전북사학회장 취임

전북대학교 이병규 동문(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사회과 86학번)이 전북지역 대표 역사학술단체인 전북사학회의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고 전했다.

3일 전북대에 따르면 전북사학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으로 재직 중인 이병규 박사를 2025~2028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내년 12월까지 2년이다.

장수 출신인 이 동문은 전주신흥고와 전북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원광대학교 대학원에서 「금산·진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국무총리 소속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담당관으로 활동하면서 참여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등록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

또한 2010년부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을 맡아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1976년 창립된 전북사학회는 도내 역사학 교수, 연구자, 대학원생 등 5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전북사학」을 매년 3회 발간하고 있다.

한편, 전북사학회는 오는 5일 오후 2시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208호에서 제93회 월례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이병규 회장



순창소방서, 119소방동요 경연 유치부 참가팀 모집

순창소방서는 오는 6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리는 '2025년 전북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참가할 유치부 팀을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이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동요를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팀은 합창과 율동을 선보이며,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을 받은 유치부 1팀과 초등부 1팀은 전북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할 기회를 얻게 된다.

참가를 원하는 팀은 동일 유치원 소속 원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원생 수가 15명 이하인 경우 인근 유치원과 연합하여 참가할 수 있다. 참가곡은 소방안전 관련 내용을 담은 창작·편곡이 필요하다.

/순창=이양형 기자



충청신문 김충현 대표, 무주군에 고향사랑 기탁

충청신문 김충현 대표가 지난 3일 무주군에 산불 피해지역 주민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

김충현 대표는 "무주에 산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고 안타까웠는데 인명 피해 없이 신속하게 진화가 돼서 너무 다행"이라며 "오늘 전하는 마음이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충청신문 김충현 대표는 무주군 실천편이 고향으로 해마다 지역발전과 인재육성에 앞장서 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임실군-LX, 측량 서비스 향상 지적 업무 연찬회 개최

임실군이 지적 행정 협력 강화, 고품질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1일 LX(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에서 지적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지적측량 수행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임실군 지적 업무 담당자와 LX 임실순창지사 직원들이 측량 민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질의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연찬회는 온택트 비대면 지적측량 성과 검사 활성화방안, 지적측량 표본검사 결과를 점검하는 등 지적측량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업무 토론과 함께 민원인에 대한 친절 서비스 교육을 병행했다.

/임실=전출영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범농협영농지원 발대식

전북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임직원 30여명 참여... 취약계층 농장 포도 가지순치기 등 구슬땀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와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지난 3일, 본격적인 영농철 농촌 일손돕기 참여 분위기를 확산을 위한 범농협 합동영농지원 발대식 및 농촌일손돕기를 남원시 산동면 일원에서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남원사무소(소장 유제성),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 농협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 농산보남원권역보존센터(센터장 이성로) 등 임직원 30여명이 참여, 취약계층의 농장을 찾아



부장은 "이번 발대식 및 농촌일손돕기로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범국민적 참여를 독려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포도 가지순치기 작업 및 마을 환경정비에 구슬땀을 흘렸다. 박기열 남원농협 조합장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일손 극복을 위해 유상 농촌 인력 중개뿐만 아니라 무상 농촌인력 중개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영석 시 지 부장은 "이번 발대식 및 농촌일손돕기로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범국민적 참여를 독려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 새마을금고 7곳, 산불 이재민 돕기 성금 1000만원 기탁

정읍지역 새마을금고가 소성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1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정읍지역 7개 새마을금고(정읍, 연지, 상명, 신태인, 태인, 감곡, 신외)는 지난 2일 최근 소성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정읍시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금은 각 지역 새마을금고가 실시할만 정성을 모아 마련된 것으로,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이화수 시장은 "지역 주민을 위한 새마을금고의 적극적인 나눔 실천에 깊이 감사드리다"며 "기탁된 성금은 피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시는 앞으로도 지역 내 여러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난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성금 전달을 계기로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따뜻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의 협력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삼흥산업·형제콘크리트·삼흥에코그린, 김제시에 3000만원 기탁

김제 지역 기업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3일 유한회사 삼흥산업·형제콘크리트(대표 송영기), 유한회사 삼흥에코그린(대표 송병희)이 총 3,0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뜻깊은 나눔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삼흥산업과 형제콘크리트가 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 △형제콘크리트가 김제시청장학금 500만원, △(유)삼흥에코그린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을 기부했다.

기탁된 성금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그리고 고향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각각 활용될 예정이다.

송영기 대표와 송병희 대표는 "고향을 위한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했다"며 "기업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을 위한 꾸준한 관심과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다"며 "보내주시 소중한 후원금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



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부터 매해마다 삼흥산업·형제콘크리트·삼흥에코그린은 인재육성을 위한 김제시청장학금과 고향사랑기부에 꾸준히 기탁하며 이웃사랑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대 경영대학, '금융기관 beSTAR 1기' 설명회

전주대학교 경영대학은 지난 2일 자유관 201호에서 금융기관 beSTAR 1기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재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금융기관 beSTAR'은 △금융기관 현장실습 △편의자 특강 및 멘토링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 컨설팅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40여 명의 재학생들이 참석해 금융권 취업에 대한 뜨거운 열의를 드러냈다. 질의응답 시간에도 활발한 질문이 이어지며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영대학 김효진 학장은 "우리 대학 학생들이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실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춰 지역 채용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김제농협, 농업인 영농차량 무상점검 실시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농협네트웍스(대표이사 송병환)와 함께 지난 2일 벽골제 공원에서 농업인 영농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무상점검 서비스는 곧 시작되는 영농철을 대비하여 영농차량의 사고 미연 방지와 원활한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실시,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1톤 트럭을 비롯해 승합차 및 승용차 등 차량 100여대를 무상으로 점검했다.

점검항목은 훼손된 와이퍼 교환, 워셔액, 냉각수 보충, 엔진오일 점검, 전구 등을 교체하였으며 서비스를 제공받은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1톤 트럭 무상점검 서비스 혜택을 받은 농업인(64·부랑면)은 "영농철을 대비하여 이번 무상 점검이 안전사고 예방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노인회 무주군지회, 노인대학 23기 과정 시작

사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지회장 이광부) 부설 무주군 노인대학이 3일 제23기 과정을 시작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입학생은 총 130명으로 오는 10월까지 7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10:00~) 교양 수업을 비롯한 교통 안전과 생활 예절, 생활체조, 노래교실, 치매 예방 관련 교육을 받게 된다. 현지 견학(수학여행) 등도 진행된다.

이광부 지회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심신, 행복한 일상, 당당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3일 무주종합복지관 강당에서 개최된 입학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무주군의회 오광석 의장과 윤정훈 도의원, 정진욱 노인대학장과 이광부 무주군지회장, 그리고 입학생 등 1백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 약사회 남원지부, 파스 3000개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 남원지부(이하 남원시 약사회)는 지난달 31일, 제일웰사이언스(주)에서 후원 받은 파스 3000개(4,500만원 상당)를 남원시 노인복지관에 전달하였다.

남원시 약사회는 2021년부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삼계탕 이불 세트, 후원금 등 다양한 물품을 남원시 노인복지관에 꾸준히 후원해 오고 있으며, 파스는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맞아 남원시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뿐 아니라 남원 지역 내 어르신 3,000명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위촉·간담회 개최

남원시는 지난 2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17기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남원시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자치기구로, 9세부터 24세까지의 지역 청소년 중 관련 기관과 학교장 추천으로 총 11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형식적 역할을 넘어 △청소년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모니터링 △청소년관련 다양한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동동, 취약계층 노후 싱크대 하부장 교체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취약계층 가정의 노후 싱크대 하부장을 교체하는 따뜻한 소통행정을 실천했다.

지원 대상자는 5인 가구의 가장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급성 간염, 척추질환, 석회성관절염, 무릎 통증 등으로 근로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가족들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으며,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로 발굴되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동에서는 대상자 가구의 노후 싱크대 하부장으로 인해 위생적인 문제와 생활 불편을 겪고 있어 쓰임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해 싱크대를 교체했다.

/남원=김기두 기자